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화라과라 과자점 (전은진)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독립서점 주인이 운영하는 그림책 독서모임에 참여했을 때 소개받은 책입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문득 어떤 풍경에서 오랜만에 받은 느낌. 이것이 계절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다과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다. (p.5)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사계절의 달력'을 만들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시간이건 저마다 사랑하는 순간을 조금 더 많이 즐기는 해가 되기를 (...) 바라는 마음으로 계절에 따라 과자의 내용물을 가지각색으로 채웠다. 제철의 과일즙이 들어간 제품. -1월, 사계절의 달력
숲의 길목 언덕에도 크고 작게, 빠르고 느리게 계절의 변화가 일고 있다. -3월, 봄의 소리
연일 비가 내린다. -8월, 나무의 이슬
언제 어디서든 여행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10월, 여행자의 과자
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계절감 가득한 재료들과 그림의 분위기에 산 책인데, 읽을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지금 즐기기 좋은 것'을 찾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4월의 스위스 산맥에는 명이나물이 자랍니다. 취리히 Uetliberg산을 걷다 산자락에 명이나물 (wild garlic)이 가득하단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먹으러 들른 레스토랑에서는 "Flavor of the Month"로 명이나물을 넣은 송아지 고기 소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시즌 메뉴에 집중했더니, 4월의 유럽은 완두콩과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딸기가 제철인 걸 알게 되었고요.
계절감을 느끼며 산다는 건, 여행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민감해진다는 부분에서요. 여행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다른 음식이나 풍경, 다른 공기의 냄새를 곧잘 캐치하니까요. 갑자기 풀냄새가 짙어진다면, 바람이 부드럽게 바뀌는 것 같은 변화를 섬세하게 느낍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4월 내내 오렌지 나무 가로수, 끝이 없는 유제품 코너, 맨홀 뚜껑과 보도블럭, 꽃병만큼 예쁜 생수병, 무인 꽃밭 같은 것을 신기해하는 여행자의 시선을 현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마지막은 광화문에서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담아내는 글판에 담긴 글입니다. (25/05/07~)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광화문글판, '꼭씩 속았수다 중